

투명한 학교 운동부 환경 만든다

전북교육청, 전북체육회와 부패 예방·청렴한 학교 체육문화 조성 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운동부 환경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2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5층 회의실에서 전북체육회와 학교 운동부 운영의 부패 발생 위험 발굴·개선 및 청렴한 학교 체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학교운동부 부패 요인 개선으로 공정성을 유지하고, 체육 종목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청렴한 학교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운영임 교육국장, 이홍열 감사관, 강양원 문예체육건강과장과 전북체육회 이종석 사무처장, 이경훈 마케팅기획과장, 유준석 대외협력팀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부패 예방을 위한 위험 요인 개선에 종목단체의 협력 강화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체육회 및 종목단체의 기준 준수와 운영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6일 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와 학교운동부 운영의 부패 발생 위험 발굴·개선 및 청렴한 학교 체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보·공동 실천 활동 추진 △그 밖에 양 기관 간 협력·발전을 위한 사항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운영임 교육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학교운동부 부패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긍정적인 가치

관 형성을 위한 공동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석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각종 경기 결과와 선수 선발 등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제2차 민관

청렴 거버넌스 점검단 회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5층 회의실에서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제2차 민관 청렴 거버넌스 점검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민관 청렴 거버넌스 점검단(이하 점검단)은 전북교육청 주요 사업부서 내 부패 취약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국장 및 부서장, 외부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기관장의 솔선수범과 부패 고리 척결 의지를 확고히 하고, 부패 유발 요인을 민·관이 함께 집중 점검해 청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각 부서별로 부패 취약분야의 개선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안 과제에 대한 협의 및 제안 사항 등을 논의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청렴은 행정과 교육 신뢰의 출발점인 만큼, 민·관 협력 기반 청렴 거버넌스의 현장 점검을 통해 부패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여행업체와 청렴 간담회 열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6일 5층 회의실에서 현장체험학습 여행업체와의 청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초·중·고 및 특수학교 여행업체 대표들과 진행한 이날 간담회는 현장 체험학습 운영의 투명성과 청렴성 강화, 학교와 업체 간 신뢰·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도교육청 청렴 정책 방향 및 주요 현안 공유 △여행업체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 △실질적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참여 업체들은 계약 절차 간소화, 업체 선정의 공정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형택 전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교육청이 직접 소통에 나선 만큼, 우리도 청렴하고 안전한 체험학습 운영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청렴 인식이 개선되고, 학교와 업체 간 협력적 파트너십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 갈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기전대, 취업지원제도 설명회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25일 진로취업지원센터와 함께 취업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학과별 취업지원 담당 교수, 대학 취업지원 담당자와 민간운영위탁기관이 참여해 △국가 및 지자체의 취업지원제도 △제도별 지원조건, 신청 절차, 수혜범위 △취업성공수당, 직업훈련비, 구직활동비 등 실비 지원 항목 △대학 내 취업지원 서비스 정책 △졸업생의 제도 활용 경험 및 성공 전략 등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취업률 향상을 위한 취업지원 TFT에서는 학과별 취업지원 담당 교수와 행정 담당자가 함께 참여해 △제도별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대학 여건 맞춤형 적용 △졸업예정자 및 미취업 졸업생 참여 현황 및 성과 지표 관리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정기 평가 및 내부 보고 상황 공유 등 운영 과정에서 학생 수요와 고용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지원 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자렌지로 차세대 광소자를?

전북대 김민수 연구교수팀, 마이크로웨이브 활용 UV-Vis 스마트윈도우·자외선 센서 기술 개발

전북대학교 김민수 연구교수(나노융합공학과·BK21-FOUR 나노융합에너지혁신소재부품인재양성사업단)가 전자렌지와 동일한 원리인 마이크로웨이브를 활용해 탄소나노점을 손쉽게 합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UV-Vis 스마트윈도우와 자외선 센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김민수 연구교수



데벤드라 박사과정



아르차나 박사과정

지난 26일 전북대에 따르면 연구팀은 액정 디스플레이 소재로 널리 쓰이는 5CB 단분자 액정을 전구체로 사용해 3~4분씩 약 20회 마이크로웨이브 사이클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분자가 탄화되며 수 나노미터 크기의 탄소나노점(Carbon Nanodots, CNDs)이 합성됐고, 이를 별도의 후처리 없이 그대로 액정 내부에 적용해 광선택형 스마트윈도우와 UV 센서로 구현한 것.

기존에는 탄소나노점 합성 후 추출량이 극히 적고, 다른 소재와 잘 섞이지 않아 응용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성과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 탄소나노점을 다양한 소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탄소나노점은 양자점(Quantum Dot)과 마찬가지로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해 다른 파장의 빛을 발광하는 특성을 지닌다. 하지만 양자점과 달리 합성이 간단하고 원재료가 흔한 유기물이며, 인체와 환경에 무해하고 안정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다만, 수율이 낮고,

섞이는 소재나 용매에 따라 발광 특성이 다르며, 잘 섞이지도 않아 소자 응용이 까다로운 점이 단점으로 꼽혀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5CB를 전구체로 선택해 단순하고 균일한 구조의 탄소나노점을 얻을 수 있었다. 합성된 나노점은 비등적성(타원형) 구조를 가지며, 편광된 파란빛을 발광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UV 흡수 특성이 방향성에 따라 달라 전기장을 통해 분자 정렬을 제어함으로써 UV·가시광선 투과 조절 및 UV 센서 기능 구현이 가능했다.

김민수 연구교수는 "마이크로웨이브 합성 후 후처리 없이 곧바로 응용할 수 있어 공정이 매우 간단하다"며 "기존 UV 제어 장비가 수백~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고가 장치인 반면, 이번 기술은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소재를 합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파테카리 망게시 데벤드라 박사과정생, 라마다스 아르차나 박사과정생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소재 포함 분야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지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IF=19)' 최신호에 게재됐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이 지난 22~26일 3박 5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에서 '2025 어린이 해외역사문화 탐방'을 진행한 가운데, 탐방에 참여한 학생들이 싱가포르 현지 학생들과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글로벌 안목·문화 감수성 '쑥쑥'

전주교육지원청, 2025 어린이 해외역사문화 탐방 진행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지난 22~26일 3박 5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에서 '2025 어린이 해외역사문화 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해외 탐방은 싱가포르의 도시 개발 역사와 다문화 사

회의 특징을 체험하고, 현지 국제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학생들은 NPS International School 교류 수업과 싱가포르 도시개발청(URA),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역

사·문화·환경을 아우르는 학습을 경험했다.

앞서 전주교육지원청은 탐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3차에 걸친 사전 교육과 더불어, 원어민 화상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채선영 교육장은 "이번 탐방은 어린이들이 낯선 환경에서 배우고 소통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소중한 배움의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 갈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합동 워크숍

올해 추진 사업 등 공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6일 전주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청-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청과 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 및 사무국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은 하반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2026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2025년 추진 사업 및 지역별 우수사례 공유 △도협의회 사업 추진 현황 발표 △2026년도 주요 사업 방향 안내 △시군별 협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역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현황과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과 발전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미연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6일 전주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청-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은 "이번 워크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내실화를 위해 협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댄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전북교육 발전 방안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형 통합 돌봄 관리체계 구축 본격화

전주비전대, 지역주민 참여형 돌봄 교육 내달 말까지 진행

전주비전대학교 RISE 사업단은 9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참여형 돌봄 캠퍼스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다양한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 전북형 통합 돌봄 관리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교육은 △노인 돌봄 △장애 돌봄 △가족 돌봄 등 3대 분야, 총 8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체험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교육은 주민 스스로가 돌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뒀다.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



해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 인식 개선과 가족 돌봄의 다변화까지 포괄하는 등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돌봄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장은성 기자